

목욕탕으로 지역민 편의시설 제공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 금정구 선두구동에 목욕탕 준공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은 상수원보호구역 선두구동 지역민의 40년 숙원 사업 '선두구동 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하고 6월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대표이사 원희 스님)은 '선두구동 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하고 6월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5월22일 개최된 이날 준공식에는 혜원정사 주지 원희 스님, 흥법사 심산 스님, 조계종연합회 사무총장 하림 스님,수도사 일철 스님,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 300여명의 지역민이 함께 했다.

선두구동지역은 지난 1964년 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1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목욕

선두구동 주민 40년 숙원 사업

금정구 총공사비 17억 지원

보건환경개선과 복지증진 기대

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 설치가 불가능해 주민들은 40년동안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일부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수익성의 고려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금정구가 총공사비 17억을 투입하여 건축하고, 영도시니어클럽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되면서 2,800여명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위탁운영을 맡게 된 혜원정사 주지 원희스님은 "목욕탕 하나 없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들이 이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발판이 되어 지역의 구성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40여년의 편의시설이 없이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선두구동의 보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준공한 선두구동 목욕탕은 지상 2층, 지하1층 연면적 692㎡(210평) 규모로 지하1층 보일러실, 지상1층 여탕, 지상2층 남탕, 별도로 이·미용실과 지상2층 규모의 농산물직거래장 용도로 건축되었다.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은 2011년 7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 12월에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에 착수해 2012년 6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2년 7월 22일 착공해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한편, 목욕탕은 오는 6월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며 스포원 후문쪽에 위치해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아기부처님 탄생 축하하는 행사 '풍성'

범어사 삼광사 등 봉축 법요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도 각각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5월 17일 범어사 경내에서 한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의 물결 속에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조실 자유대선사, 주지 수불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신도회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조실 자유 대선사는 이날 범어를 통해 "보살은 모든 중생을 태어나는 괴로움에 없는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불퇴전의 서원과 대자비심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지 수불 스님은 봉축사에서 "등불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무애자재한 불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삼광사(주지 무연)도 봉축을 맞아 다문화 가족과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다



부산 삼광사는 5월 17일 경내에서 가족과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 봉축행사를 개최했다.

문화·다종교인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봉축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삼광사 대웅보전 앞에서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개신교 백도웅 목사, 천주교 주낙길 수사, 원불교 김대선 평양교구장, 천도교 김길철 부산시교구장 등 국내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재부기관장 및 시민불자 5만여명이 법요식에 참석했다. 주지 무연 스님은 "성직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종교문화를 만들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다문화센터 소속 '레인보우합창단'의 특별공연과 다문화·다종교 평화행복기원 풍선날리기, 다문화 가정에 자비의 쌀 전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내 곳곳 사찰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제등행렬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사찰에서 펼쳐진 신나는 댄스공연

충남 세심사 청소년 댄스 공연

사찰에서 청소년들의 발랄한 댄스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7일 천년 고찰 충남 아산 세심사(주지 지해) 대웅전앞에서 청소년 댄스공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용인외고 힙합 동아리 '시티'와, 댄스동아리 '하울' 등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공연을 펼쳤다.

세심사 대웅전 앞 대웅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용인외고 학생들이 춤과 노래공연을 펼치자 자리에 있던 사부대중은 범당앞으로 나와 춤을 추면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신도회임원진 제안으로 세심사를 찾았다는 용인외고 댄스 동아리 이정문(17)학생은 "우리 동아리는 개신교, 천주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종교와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된 무대를 만들었다. 초청해주신



5월 17일 열린 세심사 댄스 공연연대회

주지스님께 감사하고, 동아리 후배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꾸꾸자

외래종보다는 토종이 좋다

우리나라 사찰은 한마디로 말해서 토종 공간이다. 현대사찰의 경우 실내공간도 현대인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밀 수 있지만,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네 사찰에서는 골기와를 씌운 지붕과 맨 땅으로 남겨둔 마당, 주변에서 주운 돌로 투박하게 쌓아올린 석축 그리고 화계나 화오에 심어진 묵단과 작약의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찰마다 특화 전략을 수립해서 다른 사찰들과 차별화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사찰주변 산야에 꽃을 심어 특별한 경관을 만든 사찰, 산나물과 약초를 심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만

들어 볼자들에게 다가가는 등 특화전략도 가지각색이다.

사찰의 특화전략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사찰을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다. 물론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절을 찾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좋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시 절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절 안팎을 꾸며 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절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서 시각적, 후각적으로 특별한 경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원하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사찰안팎에 꽃이 피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간을 만들었던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각해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산지에 자리를 잡았고 불가에서 식물들이 아름다움의 대상을 넘어서 식용과 약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부처님나라가 곧 사찰이었던 것이다.

예전에 우리 사찰에서 심었던 꽃나무나 꽃피는 풀들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온 토종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찰에 도입된 식물들을 보면 외래종이 더 많이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금강화나 매발톱꽃 대신에 무드베기나 마가렛이, 참나리나 말나리 대신에 백합이, 산국이나 쑥부쟁이, 구절초 대신에 수입종 국화가 꽃을 피우면서 지난날 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토종경관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외래종이 구하기도 쉽고 잘 자라서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토종을 지켜내는 고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사찰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심은 외래식물은 우리사찰의 토종경관과는 맞지 않는다. 경기도 사찰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미국 동양학 대학교

기회 획득 · 자기완성 · 글로벌 약진 · 세계인 위상 · 원격 화상 개방 교육 · 미국학제

중 · 고교미필자인증입학과정 / 국가사회공로자고시과정 / 대학중퇴자학사단축과정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본교는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 · 등에 현지어로 교육하는 국제적 종합대학교로서 본교 규정에 의거 한국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한국어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본교 2013년도 2학기 '학생모집'(수시가능)

- ◆ 동양학과 (육입학/사주학/풍수학/경서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종교학과 (불교문화학/기독교신학/민족종교학/심령신의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차문화학과 (한국차학/중국차학/일본차학/다기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약초학과 (양방재학/한방재학/시장분석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물리치유학과 (신체학/향취학/물신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안경학과 (검증학/재료학/제조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한방미용학과 (피부학/체질학/재료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전통식품학과 (장유학/효소학/재료학/주정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서예문인학과 (동양화학/문인화학/고미술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 전통문화학과 (한서학/고전무용학/사물학/제물학/도예학/전통의상학) 학사·석사·석박사통합 박사과정

특 전

- 위 모든 학과정이 사이버교육으로 완성되나 특별히 본교에 유학 하실분에게는 미국 학생비자(1-5년) 발급 됨.
- 가정사정으로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만 38세이상 분에게 본교 심의를 거쳐 본교 '인증과정'(3개월) 후 본교 4년제 또는 1년 졸업 단축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대학교 중퇴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단축 과정에 입학, 1년 만에 정규 학사과정을 마치게 함.
-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사회에 끼친 공로가 크고 신분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에게 본교 고시 및 심의를 통해 본교 대학원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본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분에게 심사 후 본교 교수로 우선 선발 함.
- 본교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분이 본교 교수에 발탁되는 경우 해당학 논문계획 심사 후 선 학위 부여 함.

교수초빙

본교는 국제적 사이버 종합대학교로서 국내 종립대학, 관련 학회, 사회단체, 개인도제, 사숙 등과 MOU체결을 통해 학점을 부여, 졸업시키는 학제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의 교수를 초빙합니다. 뜻있는 분은 미국동양대학교 한국경영지원협회로 연락바랍니다.

이사장 · 총장 김 영 배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www.aou.ac / webmail : aou.ac@aou.ac

국내 안내 02)738-8683 / 주소 : Nauru Loop Susupe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U.S.A. 96950 / Po Box10001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사이버종합대학교 인가번호 : 99-3013255) / President Young Bai Kim
비영리법인 한국경영지원협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남도빌딩 401호